

7-11-2010 주간 메세지

성서: 시편 27:1-14

본문: 골로새서 1:24-29

제목: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의 신비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사람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가 신비라고 증거하고 있다. 죄없고 완전하신 이스라엘의 메시아시며 우리들의 구세주께서 어떻게 흠으로 돌아가게 될 우리의 더러운 육체, 그리고 아직도 성화되지 않은 악한 마음 속에 겸손히 들어오셔서 사실 수 있는가? 우리의 육신이 죽으면 몇 일 만 지나면 벌레들이 우리 몸을 먹을 것인데 죄 없으신 분께서 그러한 죄인의 몸 안에 계신다는 사실만큼 신비로운 사실이 어디 있겠는가? 또 이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단 말인가? 우리 안에서 그 분께서 얼마나 오래 참으시면서 우리들이 거룩하게 되어 그분의 신부가 될 때까지 기다리실 수 있단 말인가?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사람의 마음 속에서 나오는 더러운 죄악들이 어떠한지 하나 하나 열거하셨다:

“이는 속에서, 즉 사람의 마음 속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간음과, 음행과, 살인과, 도둑질과, 탐욕과, 악의와, 시기와, 방탕과, 악한 눈과, 하나님을 모독함과, 교만과, 어리석음이니 이런 모든 악한 것은 속에서 나와 그 사람을 더럽히느니라.” (막 7:21-23)

구원받은 사람 속에는 옛 사람 즉, 아담의 본성이 아직도 남아있다. 또 거기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 이 사실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다. 설명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것은 사실이다. 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 해도 그들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확신한다. 그렇다면 한 분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들 속에 동시에 계신다는 말인가? 성경은 우리 안에 단지 성령님만 계신다고 말씀하시지 않는다 (고전 6:19). 또한 단지 하나님만 계신다고 말씀하지도 않는다 (빌 2:13).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라고 말씀하신다.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의 신비, 그것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시다 (골 1:27). 사도 바울은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이 믿음 안에 있는지, 다시 말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았는지 스스로 시험해 보라고 말하면서,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스스로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들이다.”** (고후 13:5)고 증거했다. 그는 또한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편지할 때 자신이 확실히 구원받았음을 증거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나는 살아 있노라.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신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갈 2:20)

예수께서 바리새인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왕국)를 볼 수 없느니라...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또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내가 너에게 ‘너희는 거듭나야만 한다.’ 고 말한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요 3:3,5,6)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왕국)를 볼 수 있겠는가? 마치 우리가 미국을 보면서 살듯이 하나님의 나라(왕국)를 보면서 살 수 있겠는가? 또한 우리가 미국 땅에 들어온 것처럼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왕국)에 지금 들어갈 수 있겠는가? 실질적인 하나님의 나라(왕국)는 저 하늘에 있지 않은가? 그곳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고 사도 요한이 증거하지 않았는가? 지금 육신 안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왕국)를 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나라(왕국)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동시에 그분께서 우리 몸 안에 들어오셔야 함께 계시는 성령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왕국)에 들어가서 왕이신 그리스도를 뵈을 수 있지 않겠는가?

사도 바울은 거듭나는 비결에 대해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기에 그리스도께서 안에 함께 사신다고 증거하고 있다. 마음 속에서 수많은 사악한 것들이 끊임없이 나오는 더러운 육체 안에 그분께서 들어오신다면 그 순간 우리의 온 영, 혼, 육은 파멸되어 지옥으로 사라져서 영원히 불타게 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증거하면서, 그러기에 하나님께 죄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그 육신에 죄를 선고하시어 율법의 의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셨다고 사도 바울이 증거한 것이다 (롬 8:3-4). 또한 이 사실에 대해 사도 바울은 우리가 단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았으며 이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 되며 행위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증거했다 (엡 2:8-9)

사람이 거듭난 후 부터 이 세상의 삶은 더 어려워지고 혼란스러워진다는 사실을 망각하면 한 동안 큰 혼란 속에 빠지게 될 수 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우리의 선한 행위를 인함이 아니며 단지 법적으로 구원받은 것이며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왕국)가 임했는지라도 이제는 법적으로 죽어버린 육신을 따르지 말고 안에 계신 왕이신 그리스도께 절대 복종해야 하는 것이다. 안에 계신 우리의 왕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육신을 따라가게 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성령을 통하여 왕이신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생명과 화평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다 (롬 8:6).

구원받은 후에 죄를 지으면 그것을 정당화시켜 보려고 애써 보지만 별 소용이 없게 됨을 알게 된다. 첫날 밤에는 그것에 대해 다소 초조해 하며 조금 무서워한다. 그 다음날 밤에는 마음 속으로 후회하게 된다. 그 다음 날 밤에는 점점 양심이 괴로워진다. 결국 그 다음 날 밤이 되면 울면서 회개하게 되는 것이다. 구원받기 전에는 육신의 오감각으로 편안하게 살았지만 구원받은 후에는 여섯 번째 감각인 새로운 본성이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한 동안은 처절한 영적인 싸움을 치르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새로운 본성인 그리스도의 마음이 온 육신을 이기고 지배하게 될 때 마침내 평안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누구든지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왕국)에 들어간 사람은 이제부터 육신의 생각을 온전히 버리고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절대 복종해야만 생명과 평안한 삶을 살면서 그분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며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뿐만 아니라 실패 할 수도 없으며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이다 (롬 8:7-8).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신 그리스도께서는 마지막 때에 있을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경고하셨다: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으며 그도 나와 함께 먹으리라.” (계 3:20)

다시 말해서, 오늘날 마지막 때의 교회 시대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왕이신 그리스도를 마음으로부터 몰아내고 자신들이 왕노릇하고 있음에 대해 경고하시는 것이다. 그러나 회개하고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들여 그분 앞에 무릎꿇고 그분께 복종하면서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자들에게는 그분의 보좌에 함께 앉을 자격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다 (계 3:21).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복종함으로써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왕국)가 굳건히 서게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을 **AMERICAN DREAM** 으로부터 구원하여 **KINGDOM DREAM** 으로 인도하지 않겠는가? 할렐루야!

7-11-2010 weekly message

Meditation: Psalms 27:1-14

Main scripture: Colossians 1:24-29

Subject: **The mystery of Christ dwelling in us**

Apostle Paul testified of the mystery that is Christ Jesus within believers. How can we understand the reason why the Messiah of Israel and our Saviour who has no sin and perfect is dwelling humbly in our sinful body, and in our wicked heart that is not sanctified yet? What a mysterious thing it is, because the Holy One is abiding in our flesh that shall be eaten up by worms several days after we die? How long could he wait until we are sanctified to be prepared to be his bride?

When Jesus spoke to the Pharisees, he listed one by one of the wicked sins out of the heart of man:

“²¹For from within, out of the heart of men, proceed evil thoughts, adulteries, fornications, murders, ²²Thefts, covetousness, wickedness, deceit, lasciviousness, an evil eye, blasphemy, pride, foolishness: ²³All these evil things come from within, and defile the man.”(Mark 7:21-23)

Even in the heart of saved one, there still remains the old man that is the character of Adam, and also the Lord Jesus Christ is dwelling within; this is not possible to explain by human words, but it is the clear fact. All the Christians have confidence of the Christ who is within them. Then, how one Christ could dwell in many believers at the same time? Bible says not only the Holy Ghost is abide within us (Cor. 6:19); not only the Father God either (Phil. 2:13). In the main passage, bible is speaking unto us of “Which is Christ in you”. The mystery of Christ which is dwelling in us; and he is the hope of glory (Col. 1:27).

Apostle Paul asked the saints of Corinthians church to examine themselves, whether they were in the faith, in other word, whether they were saved:

“Examine yourselves, whether ye be in the faith; prove your own selves. Know ye not your own selves, how that Jesus Christ is in you, except ye be reprobates?”(2Cor. 13:5)

He himself testified of his salvation clearly when he wrote to the Galatians:

“²⁰I am crucified with Christ: nevertheless I live; yet not I, but Christ liveth in me: and the life which I now live in the flesh I live by the faith of the Son of God, who loved me, and gave himself for me.”(Gal. 2:20)

Jesus spoke unto Nicodemus, the Pharisees:

“³Jesus answered and said unto him, Verily, verily, I say unto thee, Except a man be born again, he cannot see the kingdom of God.... ⁵Jesus answered, Verily, verily, I say unto thee, Except a man be born of water and of the Spirit, he cannot enter into the kingdom of God. ⁶That which is born of the flesh is flesh; and that which is born of the Spirit is spirit.”(John 3:3,5,6)

How could we see the kingdom of God as we are seeing America living within? How could enter into the kingdom of God as we have entered into America to live within? We know the physical kingdom of God exists in heaven as Apostle John testified of the throne of God in heaven. The only way through which we could see the kingdom of God is that the Lord Jesus Christ, the king of the kingdom of God should enter into us. At the same time,

we may see Christ, our king dwelling with the Holy Ghost and the Father God.

Apostle Paul testified of the way to be born again, saying he died with Christ on the cross, and Christ lives in him. It may be natural that our spirit, soul, and body should be destroyed to be cast into the hell when he enter into our evil heart from which so many so many wicked sins come out continuously. Apostle Paul testified of such things not happen unto us, saying God sending his own Son in the likeness of sinful flesh, and for sin, condemned sin in the flesh; that the righteousness of the law might be fulfilled in us (Romans 8:3-4). He also explained again about this amazing fact, saying that we are saved by grace through faith; and not of ourselves: it is the gift of God: not of works, lest any man should boast (Eph. 2:8-9).

We could be more in confusion not knowing that our life in the world could be more difficult and troublesome for a while after we are born again of the Spirit, because we are saved by grace legally not by our goodness. Therefore we have to obey Christ in the kingdom of God within us not following our flesh that is dead legally. Our king within us always speaks unto us through the Spirit; we are going to follow the flesh unto death unless we obey the word of God. If we follow Christ, our kin through the Spirit, we may live in peace and life (Romans 8:6)

Therefore we are to understand nothing can help us even though we try to compromise ourselves whenever we commit sin. In the first night we may be troubled a little bit with fear of the sin that we committed. In the next night, we may feel sorry in our heart; in the next night, our conscience may be in agony; finally, we are ended up repenting our sins with tear. Before we are saved, we have lived comfortably in our five senses in us, but we have to pass through fierce spiritual warfare for a while, because the sixth sense that is new sense through the Spirit enter into our heart. When the new sense that is the mind of Christ rules over the flesh, we shall live in peace and life finally. Whosoever born again to enter into the kingdom of God should forsake the thoughts of the flesh completely, and should obey the voice of Christ hearing in the Spirit to live in peace and life, and to please HIM. Because the carnal mind is enmity against God: for it is not subject to the law of God, neither indeed can be. So then they that are in the flesh cannot please God (Romans 8:7-8).

Christ Jesus warned unto the church of Laodicea in the end time when he appeared to Apostle John:

“Behold, I stand at the door, and knock: if any man hear my voice, and open the door, I will come in to him, and will sup with him, and he with me.”(Rev. 3:20)

In other word, the churches in the end time shall cast out Christ from their heart to make themselves the kings for them. Instead, he promised to him that overcomes shall he grant to sit with him in his throne, even as he overcomes. In other word, his promise is for them that repent and receive the king, the Lord Jesus Christ kneeling down before his feet to obey him, and have victory in the spiritual warfare. (Rev 3:2)

What about presenting our body to lead many souls deliver from **AMERICAN DREAM** unto **KINGDOM DREAM in** the Lord Jesus Christ obeying the words of God to make the kingdom of God stand firm in us? Hallelujah!